

물가·경기 부진·금융불안...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

4개월 연속 동결... 물가 상승률·가계부채 흐름 등 당분간 긴축 유지 미국과 1.75%p 차이... 연준 26일 베이비스텝만 밟아도 2%p 격차

한국은행이 지난 2·4·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

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와 성장 하방 위협,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7월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



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

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

출 사태도 금융위원회의 주요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포인트(한국 3.50%·미국 5.25~5.50%)로 벌어진다.

한은이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2%대 역전 폭으로, 그만큼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13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열린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성신(가운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소비자 권익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다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13일 광주본부 2층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 ▲양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 ▲고객 민원 최우선 해결 ▲대고객 불합리 제도 개선 ▲금융사기 피해예방 총력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금융정책변화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등의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협광주본부 전 임직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 '김치의 날' 제정

aT, 한국이 김치 종구국 명시 명인 초청 김치 클래스 등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런던 킹스턴어폰템스 왕립구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올해 1월 킹스턴 왕립구의 안드레아스 커쉬 시의회 의장이 발의했으며, 결의안에는 김치가 건강식품으로서 가진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켈디스 커쉬 시의원은 "김치는 한국 전통음식이며, 음식을 넘어선 한국의 상징"이라며 "BTS 팬만큼 김치 팬도 전 세계적으로 많으며, 이런 김치를 유럽 최초로 공식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해의 '김치의 날'은 지난 2021년 미국 워싱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미시건주, 텍사스주, 하와이주 등 미국 내 11개 주에서 지정됐다. 또 지난 6월 남미 최초로 브라질 상파울루시와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치를 알리는 '김치의 날' 제정이 유럽 최초로 허가되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제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T는 킹스턴 왕립구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10월 '김치 레시피 온라인 챌린지', '김치 명인 초청 런던 김치클래스' 등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특판 아파트담보대출
판매한도 및 감면금리 확대

판매한도 **1,500억원**
대출금리 최저 연 **3.96%** (2023.7.13.기준)
(최고 1.9%p 금리 우대)

광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인다

특판 판매한도 1000억→1500억 감면금리 최저 연 3.96% 적용

광주은행이 지역민의 이자 부담 경감과 주거 고민 해소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담보대출 특판 판매한도와 감면 금리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특판 아파트담보대출 판매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했다. 또 특판 감면금리 1.4%포인트에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고 1.9%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아, 이날 기준 연 3.96%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상품은 주택 구입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타행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특판 아파트담보대출 판매한도와 감면금리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